

내가 본 남과 북의 공직윤리

김 태영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눈앞이다.

희망 없는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올해 안에 누적 3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선택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결상황에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미래 이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탈북민들이다.

하지만 71년이라는 분단의 세월을 거쳐 온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감은 정말 크다. 그러다보니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많은 탈북민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만큼 북한사회와 남한사회는 극과 극이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는가? 한국에 온 지도 어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 한국생활에 많이 적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투성이이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나에게는 한국 사회생활이 어렵기 그지없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미래로 날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국 사회정착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지하철과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한국에 와서야 처음 접하고 배웠다. 또 모든 것을 국가가 정해주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학업도, 취업도, 진로도 모두 자신이 알아서 정해야 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됐지만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마냥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멘토 역할을 해준 분들이 바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직원들과 신변보호담당관, 지자체 공무원들이었

다. 한국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나에게 진로와 학업문제,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개인적인 고충에 대해서도 가족의 심정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

사실 북한에서는 공직사회가 부패의 상징이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체계가 무너지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해졌다.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쌀 1kg도 사기 힘든 상황이 되자 북한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온갖 구실을 붙여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는 한 발짝만 움직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물론 그 덕분에 탈북과 한국행에 성공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탈북을 결심하고 북-중 국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경여행증명서가 필요했다. 나는 안면을 익혔던 부대 기무과 간부에게 돈을 뇌물로 주고 국경여행 증명서 용지를 얻어냈다. 그 다음 주둔 지역에 있는 인민보안서 여행담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국경승인번호를 얻어냈다. 그 덕분에 국경지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고 국경경비대 사관에게도 뇌물을 주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렇듯 북한의 공직사회는 말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사회주의신념과 청렴결백을 주장하지만 돈과 뇌물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뇌물 수수는 북한 공무원들에게 필수적인 생존방식이다. 사실은 북한 전체가 '뇌물 공화국', '부정부패의 왕국'이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보니 돈이면 다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은연 중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 어떤 기관이나 집단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사명감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공직사회였다. 또 내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되고,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공직윤리를 갖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사회 정착 초기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나는 여러 차례의 실수를 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오던 날, 나는 진로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준 담당 직원 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찾아갔다. 그랬더니 그 분이 펄쩍 뛰시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다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분이 체면상이나 예의상 한 번 사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드렸다.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마워서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다.

“태영씨.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잘 알겠으니 이걸 도로 가져가세요. 이런 건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아서도 안 됩니다. 태영씨가 사회에 나가서 잘 정착하는 것이 제일 고마운 선물입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는 알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말에 나는 조금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탈북민이어서 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성의 표시가 너무 보잘 것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자격지심이 발동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학입학과 대학생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주고 채찍질도 해주었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더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청렴성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공직윤리의 하나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감사의 표시, 성의 표시라고 생각한 것이 상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것이 크든 작든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민원인이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물건이나 돈을 받는 것이 곧 뇌물인 것이다. 업무처리와 관련해 사전에 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업무가 처리된 이후에도 감사 표시를 한다고 하면서 준 것도 엄밀히 따지면 뇌물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전에 주는 것은 몰라도 일이 잘 풀려 사후에, 정말 고마운 마음에 성의가 담긴 자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 비리문제를 엄중히 보고 처벌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의문은 점차 해소됐다.

특히 지자체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학 졸업 후 나는 한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북한과 접경지역인 그 지자체에서는 남북협력사업과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또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래서 남북협력사업과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사업을 잘해 나가기 위해 남북한 양 체제를 다 경험해보고 탈북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려 했던 것이다. 거기에 감사하게도 내가 합격했다. 그래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

내가 맡은 업무는 “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관련 업무였다. 6.25전쟁 당시 북한은 10만 여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납북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비록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북한군 출신이었던 내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싶었다. 이미 수 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자료도 부족하고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나는 단 한사람의 증언, 단 한 줄의 역사적 자료라도 더 확보하고 납북되신 분들과 그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발로 뛰고 또 뛰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과 함께 목격자 증언 청취와 보증인 면담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지자체 경내가 워낙 넓은데다 하루에 여러 명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그러다 점심시간을 넘기게 됐다. 신청자 분과 면담을 이어가던 중 오후 1시가 넘어가자 그 분은 자기가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오후에 또 다른 분들과 면담이 약속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분도 완강했다. 자기 때문에 식사시간

도 늦어졌는데 식사도 안 시키고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장님은 그 분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 번이나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나와 함께 그 자리를 떴다. 시골에 사시는 그 분의 표정에는 섭섭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김밥 한 줄과 생수 한 병으로 늦은 식사를 하면서 나는 과장님에게 물었다.

“그 분 진심으로 서운해 하시던데 그냥 밥 먹고 와도 되지 않았을까요? 뭐 식당에서 비싼 식사 대접한다는 것도 아닌데 시골 어르신의를 마음을 괜히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태영씨. 비싼 식당에서 꼭 비싼 식사를 대접받고 돈을 받아야만 뇌물이 아니야. 하다못해 천 원짜리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인에게 물건이나 돈을 받으면 그 자체가 뇌물이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어지럽히는 일이지. 인정에 못 이겨 이쯤이야, 이번만이야 하다가 뇌물에 둔감해지고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앞으로도 꼭 명심해.”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때야 하는 지를 더 깊이 깨달았다. 공직생활 뿐 아니라 먼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할 양심의 기준이었다. 그 후 나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서 공직사회를 떠났지만, 지자체에서 일했던 그 2년의 시간은 한국 사회 정착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고 배움의 장이었다. 대한민국 대부분 공무원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가치관, 공직윤리의 차이가 오늘날 남과 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추월 불가능한 격차의 근원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 현재 필요한 공직가치로 청렴성과 사명감, 책임감을, 미래에 요구되는 가치로는 청렴성 외에 다양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꼽았다고 한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윤리헌장에 명시된 주요 덕목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리사욕

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누가 알아주든 말든 양심과 정의감으로 묵묵히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공직자들, 국민의 충복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